

제6강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것 II

(1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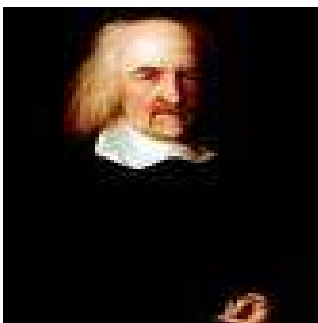
▲ 삶과 노동

- 삶은 잠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소↔물체 사이에 삶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삶의 삶을 노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노동으로 볼 수 없는 삶의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 아이들의 울음, 놀이 등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들뢰즈의 표현을 따라 Life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문제를 살펴보자.

- 프롤레타리아트를 성별과 연령 등으로 구별하는 방식은 삶에 입각한 사유가 아님. 이는 오히려 뼈, 실체에 기반한 사유에 불과함. 세계를 창조하는 힘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실체로 규정될 수 없는 훨씬 잠재적인 힘을 동반한 공동체로 볼 수 있음. 곧 이 집단은 세계의 살로 불릴 수 있음. 우리는 이를 미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삶과 몸: 잠재적인 것=삶, 현실적인 것=몸, 삶에 입각한 집단이 다름 아닌 다중.

▲ 다중에서 민중을 구분하기

- 홉스의 정치철학
- 민중을 근거로 해서 집권을 구축하면 카오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봄.
- 괴물로서의 다중을 제거하고자 함.
- 국가의 건설을 통한 통일체적 민중의 조직을 구상.
- 여기서 주권이란 하나의 지배자 아래 뭉치는 것을 말함.
- 이 과정에 저항하는 이들을 Multitude(다중)으로 부름. 홉스 자신이 이 용어를 사용하여 People과 구분하고 있음.
- 홉스는 배제와 나눔, 분할을 통해 주권을 세워나가고자 했음.
- 이러한 근대적 정치관은 살을 철저히 배제시킨 이론.



토마스 홉스(1588-1679) -다중을 배제시키고자 한 대표적 사상가

→ 이러한 사유가 프롤레타리아트들에게도 침투.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을 세워나가는 동력을 특정 인물들에게 한정시킴. 이런 사유는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도 위계적 질서를 낳게 됨.

※ 이러한 근대적 사유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개념의 창출이 필요함.

→ 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프롤레타리아트인 다중 개념의 창안이 요구됨.

(2교시)

* 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프롤레타리아트인 다중
이를 위해 우리는 룬펜프롤레타리아트에 관해 살펴보아야 함.

▲ 룬펜프롤레타리아트

본래 일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룬펜프롤레타리아트라고 했음. 맑스는 이를 보나파르트 독재의 일면으로 보았음(보나파르트는 룬펜프롤레타리아트들을 매수해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구축하는 데 이용). 곧, 맑스는 룬펜프롤레타리아트를 비생산적 존재로 규정. 이럴 경우 생산 활동이 가능한 사람만 중요하게 보는 전통적 맑스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됨. 이에 우리는 맑스의 또 다른 룬펜프롤레타리아트 정의로 돌아가야 함.

※ 룬펜프롤레타리아트의 또 다른 정의: “어떤 흐름에 동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 이러한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자기에게 부여되는 어떤 동일성을 무비판적으로 긍정하는 존재를 일컫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프롤레타리아트와 비동일성의 정치

이는 룬펜프롤레타리아트와 구별되는 면모를 지님. Actual한 것에 문제를 삼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 기존의 가치와 다른 것을 구성해내고자 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비동일성의 정치를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트라 할 수 있음. 다중 용어의 새로운 도입이 가능함.

※ 다중이란 무엇인가? 이는 민중 바깥에 서 있는 집단이 아님. 민중은 자신의 울타리를 치고 사는 존재(ex: OO민족). 이에 비해 다중은 삶과 유사한 무엇으로 정의가 가능함. 다중은 민중의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가. 다중은 삶이다.

다중은, 그것이 비록 다양하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르게 남아 있지만, 공통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 다중은 명령하는 한 사람과 복종하는 타자들을

가진 정치적 몸이 아니라 그 자신을 지배하는 살아 있는 살flesh이다.

나. 다중은 탈근대적 생산의 살이자 삶정치의 살이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다중은 노동의 공통적 주체, 즉 탈근대적 생산의 실제적 살, 그리고 동시에 집합적 자본이 자신의 전 지구적 발전의 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이다. 국가가 다중을 민중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이, 자본은 다중을 유기적 통일성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바로 이곳이, 노동의 투쟁을 통해 다중의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삶정치적 형상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곳이다.

-삶정치적 대안은 정치경제를 가로질러 확장하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과 그것의 생산성이라는 관념

-기존 사회신체들의 개혁이 아니라 다중의 생산적 살 안에서의 그것들의 급진적 변형이 문제이다.

다. 생산된 공통의 사회적 존재는 새로운 살의 모반이다.

풍부하면서 동시에 비참한, 생산성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형태가 없는 이 공통의 사회적 존재가 현대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의 강력한 모반이며 새로운 대안 사회를 창조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공통의 사회적 존재를 새로운 살로, 아직은 몸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부정형의 살로 간주해야 한다.

라. 민중의 신체 대신 새로운 살, 공통적 살이 형성되고 있다.

(1) 다중의 살은 순수한 잠재력이며 형성되지 않은 삶의 힘이다. 이것은 사회적 존재를 확장하며 가치척도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원소적 활력이다. 이것은 정치적 신체의 위계적 기관들 속으로 포획되지 않는다.

(2) 사회적 살은 하나의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괴물스럽다.

(3) 살의 괴물스러움은 자연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사회의 결과, 즉 인공적 삶이다.

(4) 흡혈귀의 형상

(가) 사회적 신체(가족)에의 위협. 과도한 섹슈얼리티, 이성애 질서의 파괴.

(나) 현대 흡혈귀의 특징: 사회적 아웃사이더이지만 우리 모두가 흡혈귀이다. (고학력 부랑자들, 성적 이상자들, 마약중독자들 등)

(다) 낡은 사회의 해체의 징후이자 새로운 사회의 형성의 징후

(5) 다중의 살의 괴물스러움을 현실화할 수단을 찾자. 그것을 대안 사회 창조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기.

마. 이 공통의 특이성이 형성할 몸의 두 가지 가능성

(1) 자본에 복무하는 전 지구적 군대에 입대하여 노예적 감금과 폭력적 주변화의 전 지구 전략에 복종하는 것. 이 새로운 사회체는 자본의 전 지구적 사회체의 생산적 기관으로 형성될 수 있다.

(2) 이 공통의 특이성이 “살의 힘”을 통해 그들 자신을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것. 살의 힘은 역사적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형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힘

정치적 갈등은 다중의 사회적 삶이 전 지구적 사회적 몸으로 조직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 사이에서 제기된다.

<참조>지구화의 정치적 형태를 연구하는 현대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근대적 몸정치학의 반복

-A. 지구적 사회를 지구적 안보체제로 읽는 사람들. 민족국가나 낡은 국제질서가 더 이상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주권형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이 초권력으로 주권을 행사해서 정치적 몸으로서의 지구적 사회의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사무엘 헌팅턴, Joseph Nye)

-B. 사회와 주권 사이의 새로운 공화주의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근대적 정치제도를 국경 너머로 확장하고 지구적 입헌질서를 통해 코스모폴리탄적 협치governance를 확립하는 것.

(A), (B)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스러운 개념화를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요소를 유기적 몸 정치 속에 조직하려 함으로써 부분들의 자유와 차이들을 환원하며 그들 사이에 위계를 설정한다. 민주적 다중은 (적어도 근대적 형식의) 정치적 몸일 수 없다. 다중은 몸의 유기적 통일성을 거부하는 특이한 삶과 같은 그 무엇이다.

바. 공통적인 것의 생산

다중의 삶이 생산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미래의 생산을 위한 토대이다. (예: 생산으로서의 소통)

공통적인 것은 생산되지만 그것 또한 생산적이다.

(1) 습관과 공통적인 것의 문제

(가) 미국 실용주의의 '습관' 개념에서 공통적인 것의 생산과 그것의 생산성

-경험, 실천, 행위에서 주체성을 탐구하기

-습관은 실천 속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것, 삶의 토대로서 기능하는 자연, 사회적 자연.

-습관은 자연의 고정된 법과 주체적 행동의 자유 사이에 나 있는 중간지점

(나) 습관의 능동성

-습관은 적극적인 수단이자, 스스로를 투사하는 수단이며 활기차고 주도적인 행동양식들이 다(존 듀이).

-습관은 살아 있는 실천, 즉 창조와 혁신의 현장, 공통적인 사회적 생산의 존재론이다.

-생산과 혁신의 동력은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공통으로 행동하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에 존재한다.

(다) 습관의 관념에서 출현하는 다중 개념

-특이성은 공통적인 것으로 토대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한다.

-특이성의 사회적 소통이 공통적인 것을 생산한다.

-다중은 특이성과 공통성의 역학으로부터 출현하는 주체성이다.

(2) 페미니즘의 수행성(performativity) 이론과 다중

-1990년대에 출현

-페미니즘의 신체에 대한 이중적 태도: 신체는 여성억압의 현장이자 페미니즘적 실천의 토대.

-신체에 반대하면서 사회적 삶의 공통적인 수행성을 찬성하는 새로운 신체이론.

-동성애적 신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소통과 협력 안에 존재하는 동성애적 삶만이 있는 것이다.

(3) 삶과 집단지성

삶의 붕붕땀과 떼지움,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지성, 즉 집단지성, 떼지성이다.

다중의 존재론과 삶정치

사. 다중은 공통적인 삶을 생산하는 특이성들의 분산된 집합이다.

아. 다중은 스스로를 새로운 사회적 신체 속으로 조직하는 일종의 사회적 삶이다.

자. 인공적인 결과이자 동시에 구성적 토대인 공통적인 것은 다중의 유동적이고 유연한 실체를 형성한다.

차. 다중의 구성적 힘은 이 복잡성의 표현이고, 그것을 훨씬 더 광범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삶정치적인 공통적인 것을 통해 움직이는 열쇠이다.